

## 예수님의 선교를 당한 사람만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사무엘 선교사 -

오사카 온누리교회 목사, 현 한국 선교부 대표, 온누리 세계선교훈련센터 원장

예수님의 선교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허다한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2천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 때보다 오히려 더 분명하고 능력 있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께로부터 선교를 당해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12-17절은 예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 첫 사역입니다.

이때는 세례요한이 투옥되어 광야의 외침인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바로 그 때였습니다. 이 소리 즉 복음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의 선교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 졌을 때 우리는 선교를 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곧 세상을 향하여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님의 선교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므로 사탄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케 하시는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사형수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우리를 떨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현장에 찾아 오셔서 우리를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므로 선교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능력 있는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선교는 천국의 선포가 목적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의 죄악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을 다스려 왔던 사탄의 권세가 끝났음을 선교함이요, 새로운 권세인 천국이 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여러분과 저를 이 천국의 은총인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이 천국의 대사로 삼으셔서 땅 끝까지 천국의 분점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선교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선교를 당하는 보배롭고 귀한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